

어두경음화의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홍 미 주**
(경북대학교)

Abstract

Hong Mi-ju. 2014. A Study of phonological variation and Language Attitude of Word-initial tensificatio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the correlation between phonological variation and language attitude. It focuses specifically on explaining the phonological variation of word-initial tensification and Language attitude of variant [fortis].

Data have been collected from 30 informants who live in Daegu through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This variable is examined and analysed to see how the variants are realized depending on the factors of informants' age and gender.

The phonological variation based on the age and gender of word-initial tensification and language attitude of variant [fortis] are summarized as below:

Fortis realization rate in word-initial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value for age and gender. However, fortis phenomenon in word-initial is quite prevalent. Language attitude of variant [fortis] for age and gender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he greater number of speakers have positive attitude of variant [fortis]. The greater number of informants express willingness to support realization of variant [fortis]

Several observation in few paragraphs have shown that if the speakers' s language attitude of a variant is positive, realization rate of a variant is more frequently. These resul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correlation between phonological variation and language attitude of word-initial tensification.

Keywords: word-initial tensification, Daegu dialect, phonological variation, language attitude.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392).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계약교수.

I. 들어가기

어두의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현상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서도 관찰되지만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지역은 남부 지역이다. 남부 지역에서 어두 평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정도가 높긴 하지만 한 어휘에 대해 어두 평음형과 경음형이 둘다 실현되기도 한다. 또한 어두 평음을 가지고 있는 어휘에 따라 경음형으로의 실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비표준발음임을 대구 지역 화자들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두 평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경상도 지역의 말투라고 인식하고 있다. 비표준발음이면서 경상도라는 지역색을 드러내는 어두경음형을 여전히 높은 비율로 실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대답의 실마리를 언어 태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어두경음형 또는 평음형에 대한 대구 지역 화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어두경음형 실현의 기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어두경음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어두경음화 실현과 언어 태도와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언어 태도

‘태도(attitude)’는 사회심리학의 개념으로, 태도 대상과 상황에 관련된 소지자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적이나 생리적인 준비 상태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태도는 인지 요소, 평가 요소, 행동 요소로 구성되는데 인지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해 소지자가 갖고 있는 모든 상념과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평가 요소 또는 정서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태도 대상에 대해 지니는 호오적 평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요소는 태도 대상과 관련된 호의적으로 또는 혐오적으로 취하는 행동, 의향의 면을 말한다.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며 태도는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태도를 결정짓는 수도 많다(한규석 2007: 210-212).

태도는 일정한 인지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태도로부터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태도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반응 경향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고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을 가진다(김대수 1993). 그렇기 때문에 언어 태도 또한 화자 자신이나 주의 사람들의 발음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을 때 형성되고, 언어 태도에 따라 언어 행동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언어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을 보인다.

언어 태도(language attitude)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Fasold(1984: 148)는 언어 태도를 언어 그 자체에 대한 태도, 특정 언어 또는 방언 사용자에 대한 태도, 언어에 관한 모든 행위(언어관리, 언어계획)에 대한 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양명희 2007: 108에서 재인용). Ryan, Ellen Bouchard, et al.(1982: 6-7)는 그동안 언어 태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었지만 평가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반응이라는 개념으로 태도의 정의가 한정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신념(belief)과 행동(behavior)이라는 개념이 언어 태도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언어 태도를 다른 언어 변종이나 다른 화자를 향한 평가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반응으로, 인식 가능하거나 행동적인 지표로 정의하였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와 행동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태도 때문에 행동이 야기되는지, 행동 때문에 태도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언어 태도 또한 언어 행동 때문에 특정 태도가 형성되는지, 태도 때문에 언어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언어 행동과 언어 태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 태도는 연구는 이중 언어 사회에서의 언어 선택과 언어 소멸,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에 비해 특정 음운 변이형의 실현과 언어 태도를 연관 지어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Labov(1963)와 Blake and Josey(2003)의 논의는 언어 태도에 따른 변이형 실현을 잘 보여 준다. Labov(1963)는 Martha's Vineyard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징표로 중설화된 변이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섬에서 변향(ay)와 (aw)의 변이형으로 중설화된 변이형의 사용이 증가하는 진행 중인 음운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설화된 변이형이 실현되는 이유는 그 지역 화자들이 이 섬의 전래적 방언형인 중설화된 변이형을 이 섬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Martha's Vineyard의 이러한 중설화 현상을 40년 후에 다시 조사한 Blake and Josey(2003)에 따르면 중설화 경향은 사회적 의미를 상실하고, 더 이상 중설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지역의 언중들이 관광 또는 외지인을 이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외지인과 스스로를 구분하고 자신들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변이형에 대한 언어 태도가 변이형 실현에 관여함을 잘 보여 준다.

국내의 연구인 김규남(1999, 2000), Paek Doohyeon(2010), 홍미주(2011, 2013)의 논의도 음운 변이형의 실현에 언어 태도가 연관 있음을 잘 보여 준다.¹⁾ 김규남(1999, 2000)은 전주 지역에서 변향(-a)와 변향(Xo-)의 변이형이 화자의 언어 태도에 영향을 받아

실현되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아’를 선호하는 현상의 원인을 표준어 지향성에서, ‘오’를 ‘우’로 실현하는 원인을 서울 말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Paek Doohyeon(2010)은 평안 방언에서 ㄷ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평안 방언 화자들의 언어적 정체성과 정치적 경험 때문이라고 논의하였다. 홍미주(2011)에서는 다양한 음운 변이를 대상으로 언어 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문법 범주에 따라 변이형에 대한 언어 태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주(2013)는 대구 지역에서 ‘오’가 ‘우’로 실현되는 것이 서울 말씨에 대한 호감과 ‘우’를 공손 표지로 사용하려는 화자들의 태도 및 의도에서 찾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음운 변이형 실현과 언어 태도가 관계가 있고, 언어 태도에 대한 논의가 음운 변이형 실현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도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태도를 통해 행동의 기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언어 태도로 화자들의 언어 행동이 예측 가능하고, 특정 언어 행동을 하는 이유를 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 태도에 대한 접근은 언어 행동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와 언어를 운용하는 주체인 화자들에 중점을 둔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III. 어두경음화 현상의 음운 변이

어두 음절에서의 경음화 현상은 방언차이를 보이는데 대개 어두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지역은 제주방언이며, 경음화가 강화된 지역은 남부방언권이며, 중부방언과 그 이북지역의 방언은 경음화가 어휘에 따라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어두경음화의 지역적 분포는 남부방언에서 가장 먼저 개신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함경, 평안, 경기방언이 그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제주방언이 가장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이상규·안귀남 2007: 293-294). 이러한 어두경음화는 체언과 용언에서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으며, ‘다른, 가득’과 같은 수식언에서도 실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평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위치에 따라 어두경음화와 어중경음화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어중경음화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어두경음화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두 음절에서의 경음화 현상이 화자나 어휘에 따라 수의적이고, 실현의 음운론적 기제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어두경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의 원인을 인간정신의 황폐화나 세태의 각박함과 같은 데서

1) 이상의 음운 변이형 실현과 언어 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홍미주(2013) 참조.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김형규, 1961; 오정란, 1988; 이주행, 1999 등).

어두경음화에 대한 논의는 방언연구자들이 지역 방언의 음운적 특징을 논할 때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 어두경음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화자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실현 양상을 논의한 연구가 비교적 많다. 그러한 연구로 이미재(1989, 1996), 이주행(1999), 강희숙(2001), 한경호·기세관(2002), 김유권(2004), 배혜진·이혁화(2010), 장승혜(2011), 이은선(2011), 한명숙(2011), 홍미주(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미재(1989)는 경기도 화성 지역의 어두경음화는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긍정적 방향은 화자의 사물에 대한 정확성을 반영하고 부정적 방향은 점잖지 못한, 즉 은밀한 권위인 남성성과 비속함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 이 지역의 어두경음화 현상은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양반 중류층보다는 하류 노동자층에서, 공식적 말투보다는 일상적 말투에서 활발히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주행(1999)에서는 한국 사회계층간 어두경음화현상은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방언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대와 계층에 걸쳐 상당한 균질성을 지닌 체 유지 혹은 보존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어두 경음화 정도가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 다만 전라 방언을 대상으로 어두경음화 실현을 논의하고 있는 강희숙(2001)과 한경호·기세관(2002), 이은선(2011)은 어두경음화 실현 정도가 세대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 나지 않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두경음화 실현 정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이는 중부 지역이나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어두경음화 실현을 논의한 연구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은선(2011)은 여성에게 친숙한 어휘의 경우 여성의 어두경음형 실현율이 높다고 하였다. 즉 어휘에 대한 친숙도 또는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어두경음형 실현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어두경음화 실현의 양상이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두경음화가 실현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언어 내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어두경음화를 논의한 연구로 박동근(2000)과 위진(2008)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연구에서는 의미의 변별을 위해 어두경음화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 박동근(2000)은 ‘동음충돌 회피’와 ‘동음충돌 저지’라는 두 가지 원리를 들어 어두경음형 실현과 비실현의 원인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원리로 어두경음화를 실현하는 단어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위진(2008)은 어두경음화는 의미나 음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음위치가 성대와 가까운 자음일수록 어두경음화가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서 어두 자음이 ㄱ>ㅈ>ㅅ>ㄷ>ㅂ 순으로 경음화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어두경음화와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로 홍미주(2011)를 들 수 있는데, 대구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홍미주(2011: 171)에서는 어두경음형의 실현 정도는 세대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성별에 따른 일관된 실현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 세대에 걸쳐 경음화 실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대구 지역에서 어두경음화는 세력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어두경음에 대한 언어 태도를 살펴본바, 어두경음형을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대는 노년층이고 중년층과 청년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어두경음형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화자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어두경음 실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어두경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사회언어학적 음운 변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두경음을 경음으로 실현하고 있고, 어두경음형이 개진자인 남부 방언 외에 다른 방언에서도 활발히 실현되는지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지 못하다. 즉, 어두경음형을 실현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두경음형에 대한 화자들의 언어 태도를 파악하여 어두경음형 실현의 기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V. 조사방법

어두경음화의 실현 양상과 그와 관련된 언어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2012년 12월에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조사는 어두경음형 실현 양상 파악을 위한 인터뷰 조사와 언어 태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제보자의 일상 발화에서 어두경음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 대상 어휘와 관련되는 질문을 하고 제보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였다.²⁾ 조사라는 격식적인 상황에서의 발화이기는 하지만 조사자가 어떤 발음을 조사하는지 제보자

2) 제보자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발음을 의식하지 않고 발화하게 하기 위해 조사 대상 어휘를 반복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볶다’의 음성실현형을 듣기 위해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삶다, 굽다’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요리해 먹는 다양한 방법, 수육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일상적인 주제라서 제보자가 쉽게 대답할 수 있고, 제보자의 발화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어휘가 여러 번 출현할 수 있는 질문이다. 또한 제보자가 한두 문장으로 대답을 끝내지 않고 비교적 긴 시간동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알기 어렵고, 말하기 쉬운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상 발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두경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 대상 어휘로 어두 자음 ㄱ계, ㄴ계, ㄷ계, ㄸ계, ㅈ계, ㅊ계 어휘 각 2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어휘는 ‘벗기다, 볶다, 두껍다, 닦다, 굽다, 감다(머리틀), 자르다, 작다, 쉬다, 삶다’ 10개이다.³⁾ 조사 항목은 구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어두경음형과 어두평음형이 공존하는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제보자들이 면담에서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도록 구어에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어휘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⁴⁾

어두경음화 실현과 관련된 언어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언어 태도 조사 방법으로는 직접 방법(direct method)과 간접 방법(indirect method)이 있다. 직접 방법에는 인터뷰 방법과 설문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설문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방법에 속하는 설문지 방법과 인터뷰 방법을 둘 다 사용하여 언어 태도를 조사하였다. 두 방법의 장점을 살려 기본적으로 설문 조사를 하되 설문 항목에 맞춰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태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⁵⁾

설문지는 태도의 구성 요소인 인지적 요소, 평가적 요소, 행동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지를 구성할 때 태도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지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3가지이다. 어두경음형의 실현이 대구 지역어의 특징적인 음운 변이이므로, 화자들의 대구말 사용 정도 및 호감 정도가 어두경음형 실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말 사용 정도와 호감 정도

3) 박동근(2000)과 장승혜(2011)에 따르면 품사에 따른 어두경음형 실현 정도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품사에 따른 실현 정도를 살펴보지 않고, 용언에 한정해 어두경음형 실현 정도를 살펴보았다.

4) 사용 빈도가 낮고 실제 구어에서 발화될 가능성이 낮은 어휘를 조사 대상으로 하면 그 어휘를 제보자가 발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보자의 발화형을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발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5)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태도 척도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유형은 리커트 방식이다. 이 척도는 태도 대상에 대한 유사 진술문을 여럿 제공하고 각 진술문들에 대하여 응답자가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통상 5-11개의 배열된 점수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쓰는 경우 유사한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응답자의 태도가로 삼는다. 가장 잘 알려진 척도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건 적용할 수 있는 의미차별척도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뜻이 상반되는 형용사를 양극에 놓고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문항별로 표시하는 것이다(한규석 2007: 216-217).

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제보자 자신의 어두경음형 실현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제보자의 주위 사람들이 어두경음형을 실현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평가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어두경음형을 발음할 때 얼마나 호의적인지 질문하였다. 행동적 요소는 화자들의 앞으로의 행동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어두경음형이 비표준발음이라고 규정한 규범에 대한 생각과 어두경음형으로의 발음 영향을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제보자는 대구에서 출생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경북 지역에서 출생하여 청년기에 대구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 대구 시민 30명이다. 제보자들은 연령에 따라 3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룹1은 20대, 그룹2는 30대와 40대, 그룹3은 50대와 60대 제보자로 구성되었다. 각 그룹의 제보자 수는 남녀 각 5명이다. 홍미주(2011)에서 학력에 따른 변이형 실현 양상에 큰 차이가 없어 학력을 고려한 조사 및 분석은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제보자의 학력은 대졸이거나 대학교 재학이다.

제보자들은 대구 출신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대구 출신과 대구 인근 경북 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1은 모두 대구 출신이고, 그룹2는 60%가 대구 출신, 그룹3은 50%가 대구 출신이다. 대구 출신이 아닌 제보자는 대구 인근 경북 지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나 결혼을 위해 대구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대구 출신이 아니지만, 대구라는 언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화자들이고, 10대, 20대에 대구로 이주해 오랜 시간 동안 대구에 거주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대구 출신은 아니지만 '대구말'을 쓰고 있고, 대구사람들과 말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⁶⁾

6) 대구는 인근 경북 지역 출신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구사회연구소(1995)는 대구는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전처럼 여러 지역 출신이 뒤섞여 있는 도시가 아니라 주로 대구를 둘러싼 경북 출신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인의 도시'라고 하였다. 대구 출신으로만 제보자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장년층 이상에서 대구보다 경북 출신이 많은 대구의 인구 구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출신을 제보자로 선정한 것은 대구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보자 선정에 대한 모색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어두경음화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

1. 어두경음화 실현 양상⁷⁾

전체 어휘 10개, ‘벗기다, 볶다, 두껍다, 닦다, 굵다, 감다(머리틀), 자르다, 작다, 쉬다, 삶다’를 대상으로 어두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자.

연령에 따른 평음과 경음의 실현 정도를 나타낸 다음 표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고, 세 그룹 모두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표 1〉 연령별 변이형 실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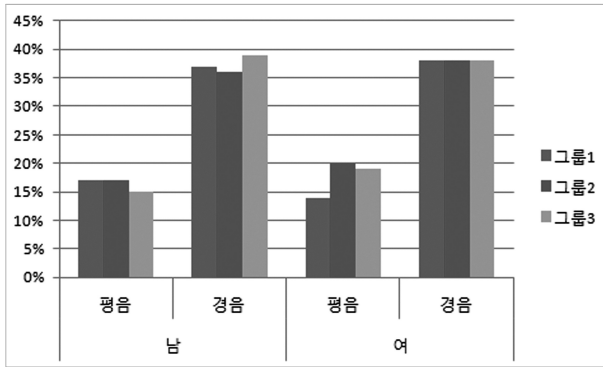
세대	변이형	평음	경음
그룹1		31%	75%
그룹2		37%	74%
그룹3		34%	77%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거의 없고, 남녀 모두 경음 실현이 우세하다.

〈표 2〉 성별 변이형 실현 정도

세대	성 변이형	남		여	
		평음	경음	평음	경음
그룹1		17%	37%	14%	38%
그룹2		17%	36%	20%	38%
그룹3		15%	39%	19%	38%

7) 각 변이형 실현율은 (해당 변이형 실현 빈도 ÷ 실현 변이형 총 수) × 100'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때의 '실현 변이형 총 수'는 조사 어휘에 대해 각 제보자가 실현하는 변이형을 모두 더한 것이다. 제보자들은 변이형 '평음'과 '경음' 중에 하나만 배타적으로 실현하지 않고 똑같은 발화상황인데도 두 개의 변이형을 둘 다 실현하기도 하였다. 발화상황의 변화가 없는데도 한 제보자가 변이형 A, B를 둘 다 실현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지 않고, A, B 각각을 출현빈도에 합산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각 변이형의 합산이 100%를 넘기도 한다.



〈그림 1〉성별 변이형 실현 정도

이로 보아, 대구 지역에서 어두 평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연령이나 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변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대구 지역에서 우세하게 실현되는 음운 변이임을 알 수 있다.⁸⁾

어휘에 따라 각 변이형의 실현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어휘에 따른 변이형 실현 정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어휘별 실현 정도

어휘	그룹 변이형	그룹1		그룹2		그룹3	
		평음	경음	평음	경음	평음	경음
벗기다		50%	50%	70%	60%	60%	60%
볶다		30%	70%	20%	80%	10%	90%
두껍다		50%	50%	40%	60%	30%	80%
닭다		10%	90%	10%	90%	10%	100%
굽다		40%	90%	40%	80%	20%	90%
감다		0%	100%	20%	90%	30%	90%
자르다		0%	100%	10%	90%	10%	90%
작다		50%	60%	50%	70%	90%	40%

8) 대구 지역어의 어두 경음화에 대한 논의인 배혜진·이혁화(2010)에서도 어두경음화 실현 정도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어두경음화 실현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이 어두경음화 실현 정도가 높긴 하지만 연령과 성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섞다	30%	80%	50%	60%	30%	70%
삶다	50%	60%	60%	60%	50%	60%

어휘에 따른 변이형 실현 정도를 위의 표를 통해 살펴보면, 그룹2와 3의 경우에는 평음 실현율이 0%인 경우는 없어, 조사 대상 어휘의 발음에 경음형과 평음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그룹1의 경우에는 ‘감다, 자르다’는 경음형으로만 실현되어 ‘깜다, 짜르다’로 어휘가 재구조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땀다, 자르다’의 경우에는 경음형 실현율이 세 그룹 모두 높다. ‘감다’는 그룹3에서 그룹1로 갈수록 경음형 실현정도가 높아지고 평음형 실현정도는 낮아진다. 경음형과 평음형이 공존을 할 때 경음형의 실현정도가 더 높으나, ‘작다’의 경우에는 그룹3에서 평음형 실현정도가 더 높다.

이처럼 그룹에 따라 어휘의 경음형 실현 정도가 다른데 이를 그룹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어휘의 경음형 실현 정도

	그룹1	그룹2	그룹3
평음형 ↓ 경음형	벗기다, 두껍다 작다, 삶다 섞다, 볶다 굽다, 땀다 감다, 자르다	벗기다 삶다 섞다 두껍다 작다 굽다 볶다 땀다 자르다 감다	작다 벗기다 삶다 섞다 두껍다 굽다 감다 볶다 자르다 땀다

어휘에 따라 경음형의 실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마다 경음형 실현이 높다고 보고하는 품사와 어휘에는 차이가 있다. 용언만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결과, 어휘에 따른 경음형 실현 정도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경음형으로 재구조화된 어휘에서 그룹별 차이를 보인다.

2. 어두경음화에 대한 언어 태도

1) 대구말 사용 정도와 태도

어두경음화는 남부 방언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으로, 제보자들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경상 지역의 말씨로 인식하고 있다. 남부 방언 혹은 대구말에 대한

태도와 어두경음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구말의 사용 정도와 호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구말 사용 정도를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자.⁹⁾

〈표〉 대구말 사용 정도

보기 그룹	1	2	3	4	5
그룹1	70%	30%	0%	0%	0%
그룹2	60%	40%	0%	0%	0%
그룹3	70%	10%	0%	20%	0%

세 그룹 모두 대구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룹3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소수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다음으로, 대구말에 대한 호감 정도는 다음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¹⁰⁾

〈표 6〉 대구말에 대한 호감 정도

보기 그룹	1	2	3	4	5
그룹1	70%	30%	0%	0%	0%
그룹2	60%	40%	0%	0%	0%
그룹3	70%	10%	0%	20%	0%

대구말에 대한 태도는 세 그룹 모두 대체로 긍정적이다.¹¹⁾ 다만 그룹3에서 소수로 대구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9) 대구말을 평소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① 항상 사용한다. ② 자주 사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사용한다. 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0) 대구말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대구말에 대한 호감 정도는 어떻습니까?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싫어한다

11) 대구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조준학 외(1981: 192)는 방언에 대한 호감도에서 성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경북 지역 화자들이 다른 방언 화자들보다 자신의 방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립국어원(2010:70-72)은 동남 방언권에서 방언 사용자에 대한 견해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방언 사용 비율 또한 높다고 하였다. 또한 한성우(2012)도 동남 방언 화자들이 자신의 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의 존재 및 표준어 사용의 의무에 대한 인지도, 표준어 사용 의향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대구말 사용 정도와 대구말에 대한 호감 정도가 비슷하다. 이는 대구말 사용 정도와 대구말에 대한 호감 정도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호감도와 사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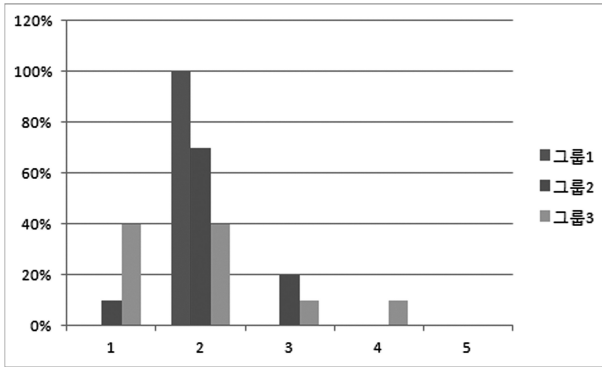
2) 변이형 어두경음에 대한 태도

(1) 변이형 어두경음에 대한 인식 정도

제보자가 어두경음화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어두경음형을 어느 정도로 실현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자.¹²⁾

〈표 7〉 변이형 ‘어두경음’ 인식정도(%) - 연령별

보기 \ 그룹	1	2	3	4	5
그룹1	0	100	0	0	0
그룹2	10	70	20	0	0
그룹3	40	40	10	10	0



〈그림 2〉 변이형 ‘어두경음’ 인식정도 - 연령별

12) 선생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 지인,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은 ‘딱다, 짜르다, 꺾다, 쫘다, 뚜껍다, 썩다’ 이런 발음을 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 ① 항상 그렇게 발음한다. ② 자주 그렇게 발음한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그렇게 발음한다.
- ⑤ 전혀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다.

세 그룹 모두 주위 사람들이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한다는 응답이 많다. 특히 그룹1은 경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이 100%이다. 이때 '주위 사람'은 제보자와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제보자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음의 경향을 제보자들 또한 잘 인식하고 있음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제보자들은 대체로 대구 지역의 화자들이 어두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경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20대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신의 발음에 대한 인식 정도

다음으로 제보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어두 평음을 어떻게 발음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조사 대상 어휘를 제시하고 어휘의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떠한지 질문하였다.¹³⁾

개별 어휘에 대해 어두평음과 어두 경음 중 어떤 것으로 발음하느냐고 묻지 않고, 경음으로 발음하는 정도를 고르게 한 이유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 어휘에 따라 어두 경음으로의 실현 정도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화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두 평음과 어두 경음을 둘 다 실현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상 발화에서 실현하는 변이형으로 하나만을 고르게 하는 것은 실제 제보자의 변이형 실현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3) 사람들 중에 '작다, 자른다'를 그대로 '작다, 자른다'로 발음하기도 하고, '작다, 짜른다'처럼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여쭙보려고 합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① 항상 그렇게 발음한다. ② 자주 그렇게 발음한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그렇게 발음한다. ⑤ 전혀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다.

'양말을 벗긴다'를 '양말을 뺏긴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기름에 볶는다.'를 '기름에 뽏는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웃이 두껍다.'를 '웃이 뚜껍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방을 뒹다'를 '방을 뺨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고기를 굶다'를 '고기를 꺼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머리를 감다'를 '머리를 꺼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머리를 자른다'를 '머리를 짜른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방이 작다'를 '방이 째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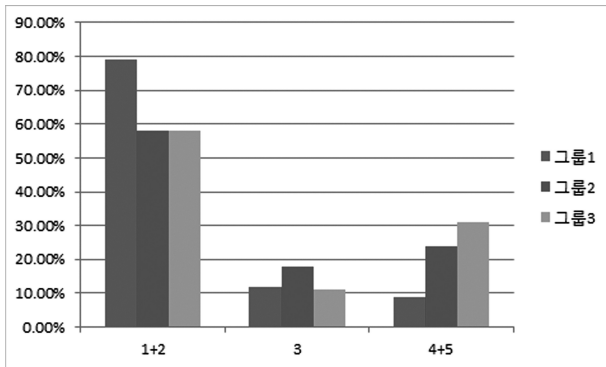
'양념장을 섞다'를 '양념장을 쪼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고기를 삶다'를 '고기를 쪼다'로 발음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조사 어휘 10개 전체를 대상으로 각 보기의 응답률을 살펴보자.

〈표 8〉 제보자가 보고한 변이형 ‘어두경음’ 발음 정도(%)-연령별

그룹	보기				
	1	2	3	4	5
그룹1	18	61	12	5	4
	79		12	9	
그룹2	25	33	18	12	12
	58		18	24	
그룹3	21	37	11	17	14
	58		11	31	



〈그림 3〉 제보자가 보고한 변이형 ‘어두경음’ 발음 정도-연령별

그룹1은 보기 2번의 응답률이 제일 높고, 그룹2와 그룹3은 보기 1에서 5까지 골고루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모든 그룹에서 보기 1번과 2번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면, 항상 또는 자주 어두 경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증가한다. 그룹2와 그룹3의 응답률에는 차이가 보기1과 2를 선택한 비율에 차이가 없으나, 그룹1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비교하여, 가끔 하거나 전혀 어두 경음을 발음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그 비율이 20대에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즉, 20대 화자들은 자신들이 어두경음을 발음하는 정도가 높고, 평음으로 발음하는 정도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젊은 화자들이 자신들이 경음으로 발음하는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이 비율은 실제 경음 실현율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그룹2와 그룹3은 자신들의 발음을 보고할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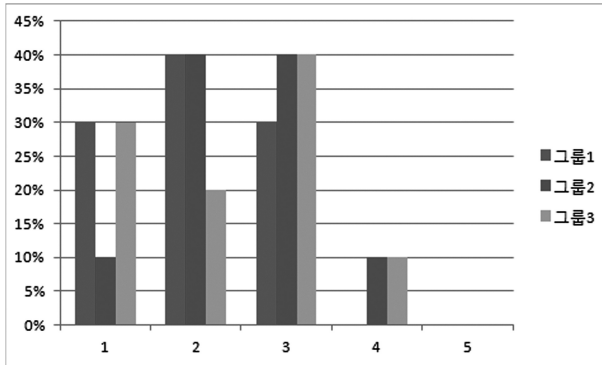
경음으로 발음한다고 보고한 비율이 실제로 경음으로 발음하는 비율보다 낮다. 즉, 그룹2와 그룹3은 자신들이 경음을 실제보다 덜 실현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룹1이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에 대해 세 그룹 중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변이형 어두경음에 대한 평가

어두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남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연령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¹⁴⁾

〈표 9〉 남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 연령별

그룹 \ 보기	1	2	3	4	5
그룹1	30	40	30	0	0
그룹2	10	40	40	10	0
그룹3	30	20	40	10	0



〈그림 4〉 남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연령별

세 그룹 모두 대체로 보기 1, 2, 3번을 선택하고 있어 남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룹1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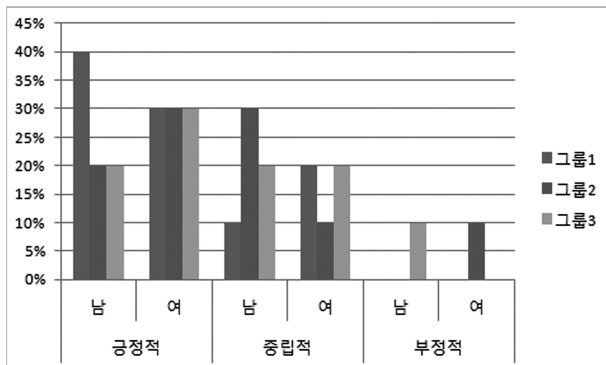
14) ‘딱다, 짜르다, 꺾다, 썬다, 뚜겁다, 썬다’ 이런 발음을 남자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부정적

부정적인 태도인 4번과 5번을 전혀 선택하지 않아 남자가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룹2와 그룹3은 부정적인 태도에 속하는 4번을 낮은 비율로 선택하여 소수의 제보자는 남자가 어두경음형을 실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남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성별로 살펴보자.

〈표 10〉 남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 - 성별

응답 성 그룹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남	여	남	여	남	여
그룹1	40	30	10	20	0	0
그룹2	20	30	30	10	0	10
그룹3	20	30	20	20	10	0



〈그림 5〉 남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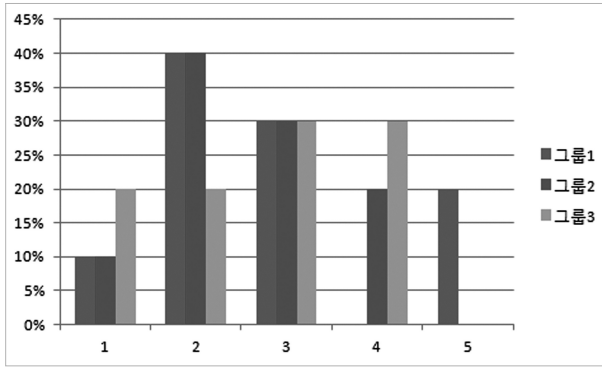
결과를 분석하면 유의미한 성차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의 태도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연령별로 살펴보자.¹⁵⁾

15) ‘딱다, 짜르다, 꺾다, 쪼다, 무꺾다, 쪼다’ 이런 발음을 여자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부정적

〈표 11〉 여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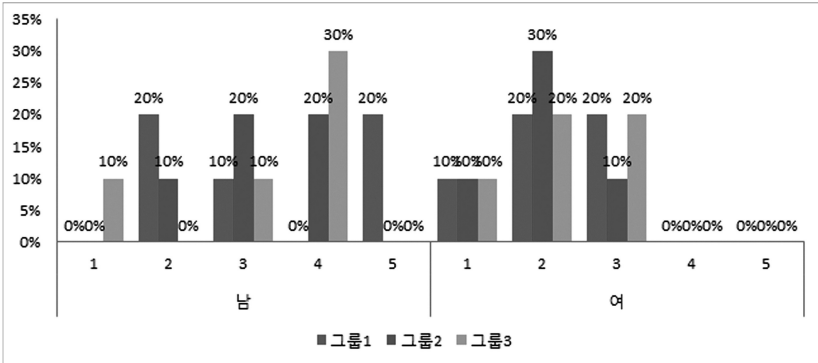
보기 그룹	1	2	3	4	5
그룹1	10	40	30	0	20
그룹2	10	40	30	20	0
그룹3	20	20	30	30	0



〈그림 6〉 여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연령별

그룹1은 다른 그룹과 달리 5번을 선택한 경우가 있다. 남성이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4번을 소수로 선택한 것과 대조적으로 여성이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에 대해 4번과 5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경음을 발음할 때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룹1과 2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룹3은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인식을 고루 가지고 있다.

여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제보자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자.



〈그림 7〉 여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

여성은 세 그룹 모두 보기 1번을 선택한 경우가 있지만 그룹1과 그룹2의 남성은 1번을 선택한 경우가 없고, 그룹3 남성이 소수로 1번을 선택하였다. 여성은 세 그룹 모두 보기 4와 5를 선택한 경우가 없지만 남성은 세 그룹 모두 보기 4 또는 5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여성이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여성 제보자는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남성 제보자는 부정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두경음형을 발음하는 화자의 성에 따른 태도를 비교해 보면, 남성이 어두평음을 경음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여성이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여성 제보자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 제보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경음으로 실현하는 화자의 성과 제보자의 성에 따른 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 제보자는 경음을 발음하는 화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른 태도 차이가 거의 없으나 남성 제보자는 여성이 경음을 발음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남성이 여성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발음 규정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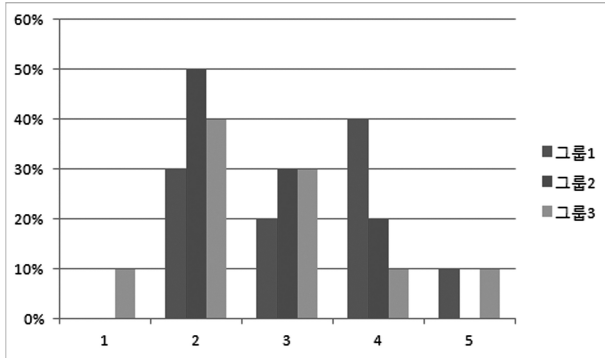
발음 규정에 대한 제보자의 태도는 발음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다. 해당 음운 현상과 관련된 발음 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발음 규정 준수에 대한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비표준발음에 해당하는 변이형이라도 일상 발화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발음이므로 평음으로 발음해

야 한다는 발음 규정¹⁶⁾에 대해 제보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⁷⁾

〈표 12〉 발음 규정에 대한 태도(%)-연령별

보기 \ 그룹	1	2	3	4	5
그룹1	0	30	20	40	10
그룹2	0	50	30	20	0
그룹3	10	40	30	10	10



〈그림 8〉 발음 규정에 대한 태도-연령별

그룹1은 보기 중 4번 선택률이 높아서, 어두 평음만을 표준발음으로 정해 놓은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낮다. 즉 실제 발음되고 있는 어두경음형을 발음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룹1은 그룹2와 그룹3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룹1은 동의 정도가 30%, 비동의가 50%인데 반해 그룹2와 그룹3은 동의 정도가 50%, 비동의가 20%로, 동의 정도와

16) 표준발음법에 어두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비표준 발음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없으나, 어두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비표준발음에 해당한다.

17) 표준발음에서는 ‘따다, 짜른다, 뿔는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틀린 발음이고, ‘닭다, 자른다, 뿔는다’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는 발음이므로 이런 발음을 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⑥ 특별한 생각이 없다.

비동의 정도가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20대 청년층은 어두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고, 이는 어문 규범에 대한 거부로까지 이어진다. 이에 반해 장년층인 그룹2와 노년층인 그룹3은 자신들의 실제 발음과 상관없이 어문규범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세 그룹 모두 경음형 발음 비율이 높고, 경음형 실현에 대한 태도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발음 규정에 대한 태도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는 세대에 따른 사회규범 수용 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사회규범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되도록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세대에 따른 사회규범에 대한 태도가 발음 규정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를 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표 13〉 변항 (어두 평음)의 발음 규정에 대한 태도(%)-성별

성 보기 그룹	남					여				
	1	2	3	4	5	1	2	3	4	5
그룹1	0	20	0	20	10	0	10	20	20	0
그룹2	0	20	20	10	0	0	30	10	10	0
그룹3	0	20	10	10	10	10	20	20	0	0

(5) 발음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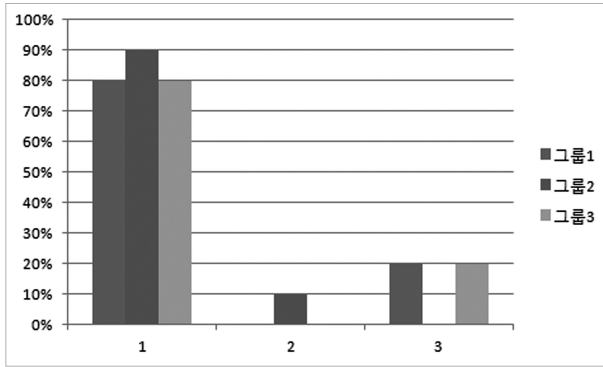
어두평음을 어떤 변이형으로 발음할 것인지에 대한 제보자들의 발음 의향을 알아보자.¹⁸⁾ 앞으로 어두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8) 앞으로 '뉘다, 자른다, 볌는다'를 '뉘다, 짜른다, 뉘는다'로 발음할 것이다.

① 예 ② 아니요 ③ 둘 다 발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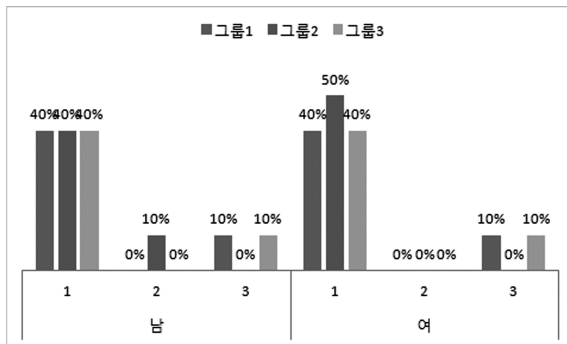
〈표 14〉 발음 의향(%)-연령별

	1 (경음)	2 (평음)	3 (둘 다)
그룹1	80	0	20
그룹2	90	10	0
그룹3	80	0	20



〈그림 9〉 발음 의향-연령별

세 그룹 모두 경음으로 발음하겠다는 응답이 많다. 평음으로 발음하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치고, 대체로 경음으로 발음하거나 간혹 평음과 경음 둘 다 발음하겠다는 응답이 있다. 발음 의향에 대한 그룹별 차이는 거의 없다.



〈그림 10〉 변향 (어두 평음)의 발음 의향-성별

제보자의 성별에 따른 의향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고, 남성과 여성 모두 경음으로 발음하겠다는 응답이 많다.

3. 변이형 실현과 언어 태도와의 관계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제보자들의 태도는 어두 경음을 실현하는 주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남자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여성이 경음을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높았으나 남성이 경음을 실현하는 것보다 여성이 경음을 실현하는 것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제보자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제보자들은 남성이 어두평음을 경음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여성이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여성 제보자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 제보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발음이므로 평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발음 규정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동의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젊은 층의 화자들은 그러한 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높다. 그리고 앞으로 할 발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음으로 발음하겠다는 응답이 많다. 이 같은 어문 규범에 대한 거부하는 지역 방언에 대한 태도와 어두경음형에 대한 태도 둘 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성우(2012)는 동남 방언 화자들이 자신의 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의 존재 및 표준어 사용의 의무에 대한 인지도, 표준어 사용 의향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역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표준발음에 해당하는 어두평음의 발음을 거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진호(2009: 129)는 음운 변화에 언어 외적인 요인 중 어문 규범의 영향이 크다고 하면서 중년층 이하 언중들의 언어에 언어규범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두 경음화와 관련해서는 언어규범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오히려 언중들은 어두 평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발음 규정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이 규범을 거부하는 태도는 어두경음형을 발화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변이형을 실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희숙(2001) 또한 어두경음화와 화자들의 평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어두경음화 형에 대한 광주 방언 화자들의 평가가 크게 부정적이지 않고, 표준 변이형에 대해 '어색하

다, 격식적이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화자들의 평가가 이 지역 방언에서 어두경음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두 경음화형에 일종의 은밀한 권위(covert prestige)를 부여하는 인식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는 한 표준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두경음화가 계속해서 유지 혹은 보존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어두경음화가 세대에 따른 급격한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당히 균질적인 비율로 유지되는 것은 언어 사용자들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강희숙 2001: 24-26).

어두경음화에 대한 화자들의 심리적 실체에 대해 분석한 이미재(1996)는 어두평음과 어두경음에 대한 화자들의 인식이 다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들은 경음화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평범한 느낌, 현학적인 느낌'이 들고, '예의와 격식을 차릴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천천히 말할 때' 경음화 되지 않은 발음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경음화된 표현에 대해서는 '부정적 느낌, 상스러운 느낌, 교육정도가 낮은 느낌'이 들고 '강조하거나 과장할 때, 빨리 말할 때, 비격식적 상황에서, 무시할 때, 흥분했을 때' 경음화된 발음을 하고, 경음화된 발음을 하면 '의미가 강렬해지고, 의미의 세기가 더해지고, 강도가 강해진다'고 응답하였다(이미재, 1996: 50; 강희숙, 2001: 1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화자들의 인식 및 평가는 방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보자들 또한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딱딱하고, 거칠고, 센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강조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경음으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제보자들에게 언제 어두 경음을 발음하는지 물었을 때, 제보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거나 화자의 행동 변화를 빨리 이끌어 내려고 할 때 어두 경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미재(1996)가 파악한 어두 경음화에 대한 화자들의 심리적 실체와 조금 다른 것은 본 연구의 여성 제보자들이 경음형을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성 제보자 중 몇 명은 여성이 어두경음형을 사용하면 경쾌한 느낌, 귀여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및 답변은 남성 제보자에게서는 듣지 못한 것으로, 여성은 여성이 어두경음형을 발음할 때 경쾌하거나 귀여운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두경음화형을 발음하는 의도와 이유가 음상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의미상의 강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두경음화형이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데서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성 실현형이 단순히 한 변형에 대한 음운 변이형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측면을 고려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효율성 및 화자의 의도 전달, 긍정적인 느낌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평가를 바탕으로 어문 규정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고, 앞으로도 경음을 더 많이 발음할 것이라는 의향을 보인다. 이러한 평가와 의향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높은 비율로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것 또한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VI. 나오기

본고에서는 언어 태도와 언어 사용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어두경음형 실현과 그와 관련된 언어 태도가 어떠한지, 어두경음형 실현에 언어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태도의 3가지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언어 태도 측정 질문을 만들었다. 그 결과 어두평음을 어두경음으로 실현하는 변이를 화자들 또한 인식하고 있고, 어두경음형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어두경음형을 실현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가 대구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어두 평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데 영향을 주고, 어두경음형이 비표준발음에 해당하지만 화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두경음형을 실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운 변이에 대한 논의에서 화자들의 언어 태도가 고려된다면 음운 변이의 실현과 그 기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희숙 (2001).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광주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7, 537-564. 한국언어학회.
- 국립국어원 (2010). 201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김규남 (1999). “전북 정읍시 청소년층의 언어 태도와 변형 (-a)의 상관성 연구.” 국어문학 34, 23-47. 국어학회.
- 김규남 (2000). “변형 (-Xo)의 개신에 대한 전주시 화자들의 언어 태도와 비제도적 규범.” 한국언어문학 44, 543-566. 한국언어학회.

- 김대수 (1993). 태도형성론. 우신출판사.
- 김유권 (2004).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겨레어문학* 32, 1-23. 겨레어학회.
- 김형규 (1961). “국어 강음화 현상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21, 104-113. 국어국문학회.
- 대구사회연구소 (1995). 대구·경북 사회의 이해. 한올아카데미.
- 박동근 (2000). “말머리에 나타나는 이유 없는 된소리 현상 연구.” *언어학* 27(1), 179-200. 한국언어학회.
- 배혜진·이혁화 (2010). “대구 지역 어두경음화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6, 301-32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양명희 (2007). “한국인의 언어 의식의 변화.” *사회언어학* 15(1), 107-128. 한국사회언어학회.
- 오정란 (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위진 (2008). “전남 방언에 나타난 어두경음화.” *한국언어문학* 65, 111-135. 한국언어문학학회.
- 이미재 (1989). “어두 경음화에 관한 사회 언어학적 고찰: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수원대학교 논문집* 7, 61-73. 수원대학교.
- 이미재 (1996). “경음화의 심리적 실체.” 제1회 서울 국제 음성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상규·안귀남 (2007). *한국어방언학*. 학연사.
- 이은선 (2011). 전주 지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행 (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7(1), 51-76.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진호 (2009). “현대 국어의 음운사적 고찰.” *국어사연구* 9, 123-150. 국어사학회.
- 장승혜 (2011). 어두 경음화 현상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준학·박남식·장석진·이정민 (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어학연구* 17(2), 167-1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한경호·기세관 (2002). “여수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과학과 교육* 10, 1-17.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과학교육연구소.
- 한규석 (2007).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한명숙 (2011).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성우 (2012). “방언과 표준어 의식.” *방언학* 16, 383-410. 한국방언학회.
- 홍미주 (2011). 대구 지역어의 음운변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 홍미주 (2013). “변항 (오)의 변이형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방언학 18, 325-367. 한국방언학회.
- Blake, R., and Josey, M. (2003). The /ay/ diphthong in a Martha’s Vineyard community: What can we say 40 years after Labov? *Language in Society* 32(3), 451-486.
- Fasold, R.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Oxford, England). Blackwell.
- Labov, W. (1963). The Social Motivation of a Sound Change. *Word* 19, 273-309.
- Labov, W.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Paek Doohyeon (2010). P’yöngan Dialect and Regional Identity in Chosön Korea. In Sunjoo Kim (ed.), *Northern Region of Korea*, 116-138.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Ryan, Ellen Bouchard, et al. (1982). An Integrative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Attitudes toward Language Variation. In Ellen Bouchard Ryan, et al (ed.), *Attitudes towards Language Variation: Social and Applied Contexts*, 1-19. London: Edward Arnold.

홍미주

mibong78@hanmail.net

논문 접수일: 2월 15일

논문 심사일: 3월 1일~3월 31일

게재 확정일: 4월 10일

